



실종 104일 만에... 3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어제 제주시 한림읍 인근 도로변 야자농장서 발견
장미란씨 장기 투숙 숙소에서 약 1km 떨어진 장소
경찰 “시신 부패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 감식중”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104일 만이다.

24일 제주경찰청은 합동 수색과 정에서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실종 당시 장씨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의류와 금팔찌·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수습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종된 장씨로 추정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1km 거리의 도로변에 있는 야자수 농장이다. 숙소에서 이 곳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에서 외출한 뒤 행방이 끊겼다. 장씨의 동거인이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112에 최초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당시 관할 파출

소가 신고인을 대면하고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값을 통해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다. 장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것은 지난 5월 16일 오전 9시44분쯤 제주시 한림항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경찰관인 A경장이 신고인에게 “장씨와 통화를 했으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전달했고 최초 실종신고 이후 2시간30여 분만인 밤 9

시16분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A경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함에 따라 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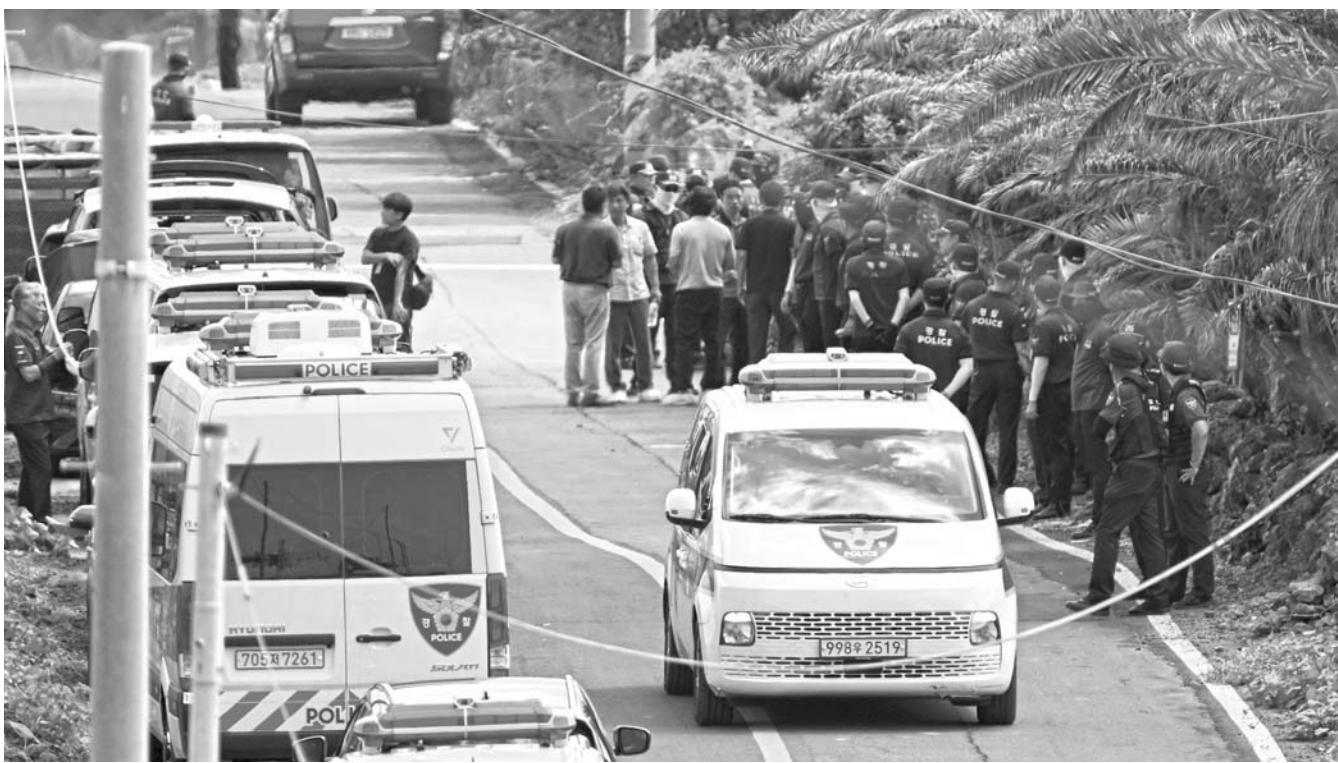
하지만 이후로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이 지난 7월 19일 재차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A경장이 허위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경장은 장씨와 통화한 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장씨의 통신기록 조화 결과 1차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통화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경찰은 실종 관련 정보가 축적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의 자료가 없는 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경찰은 A경장이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어 A경장이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실종자건 처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실종신고 298건이 A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위 종결 여부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소정·양유리기자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변 야자수농장에서 3개월 넘게 실종됐던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관 석방

제주지법 “긴급체포 요건 안돼”
A경장 청구 체포적부심 인용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

집행방해)를 받는 A경장이 이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제주지법은 이날 체포적부심사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따

라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A경장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입력됐던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은 25일쯤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실종 허위 종료’ 사건 진상규명 철저히”

이재명 대통령, 어제 진상조사·개혁안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대통령께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주에서는 지난 5월 실종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장씨의 실종신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가 실종자 가족이 재신고하면서 100여일 만에 수색이 재개되자마자 발견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전국 각 지방 경찰의 실종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실종 신고의 경우 현재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개선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종 신고 관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전체 사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지시했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사흘 동안 4명... 실종자 시신 발견 잇따라

조천해변·애월 무수천 등지서 숨진채 발견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만에 발견된 가운데 이밖에도 또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4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해변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7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

다. B씨는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9시35분쯤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 일대에서도 실종자 60대 남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지난 1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와 C씨 실종사건은 허위종결 논란을 빚은 A경장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관광사업체 공유오피스 하반기 입주자 6곳 모집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오피스 신규 입주자 6곳을 이달 28일(오후 6시)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상품 개발·마케팅 활성화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공유라운지, 회의공간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오피스’를 운영 중

이다. 현재 입주 기업은 여행업 27개사, 스타트업 1개사다.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1인 여행업체(국내·국내외·종합)와 스타트업에 더해 ‘컨소시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입주사로 선정되면 사무공간과 공용 비품, 회의공간 활용 등 시설 지원이 제공된다. 또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광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미숙기자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마일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나 야남)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